

## 나라이 임하옵시며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5 번째 주로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한 구절에 대해 강해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 :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나의 가정, 천국과 같은 나의 삶,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을 먹을가 입을가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질병의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었던 때는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부터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고약한 것은, 슈바이처 박사가 쓴 논문이 아닌가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부부는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흑인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20 세기의 성자라고 추앙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분이 그의 신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하나님의나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메세지 안에는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곧 이루어진다고 하고, 다른 곳을 보면 또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합적으로 혼돈되어 나온다. 예수는 자기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절망적으로 되어, 그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자유 주의적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역사상에 존재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 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짓기를 예수가 단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 그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세명 대학의 도올 김용욱교수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가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fiction 이 된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신성이 없어도 된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메세지, 곧 케리그마에 불과 하다.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신성을 빼버려도 기독교는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용욱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면 그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착각과 혼돈이 된 것과 같습니다. Historical Jesus 만 인정하고 Dogmatical Jesus 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착각과 혼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과 혼돈 속에서 기독교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귀찮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성일위(Hypostatic Union),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이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 위에 더 붙여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적 지식과, 신앙의 성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6 :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부터 약속되어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I.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

1.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43 :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나라

왕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시편 103 :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다니엘 4 : 35 땅의 모든 거민을 엷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편 145 : 11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시편 145 : 12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시편 145 :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구약은 말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 주권으로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

이 것이 구약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러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시편 96 :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96 : 12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편 96 : 13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13 절에 있습니다.

시편 96 : 13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전에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통치하러 오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위에 세우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영원히 절대 주권으로 영원히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시니,**

시편 96 :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시편 96 : 12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편 96 : 13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렇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는 때가 되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초림과 재림의 단계를 거칩니다.**

**완성고 성취, 초림과 재림의 그 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 II.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음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1.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세지는

마가복음 1 :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 :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ye, and believe the gospel.**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4 :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3 :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3 :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 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막 1:14-15 을 읽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1 :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 :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ye, and believe the gospel.**

마 3:1-2 과 막 1:14-15 을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의 선교와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른 점은 ‘**때가 찼고**’ 입니다<sup>1</sup>.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The time is fulfilled)의 구절이 있는 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장차 때가 차면 메시야가

---

<sup>1</sup>. 마 3:7-10 을 보면 임박한 심판을 전함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시대( time), *kairos*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새시대를 예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time= *kairos*)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The time is fulfilled 의 의미입니다.

3.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 하지 않았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 조차도 묻지를 않았읍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아주 친숙하고 낯익은 주제였읍니다. 비록 유대교 안의 여러 종파 안에서 개념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읍니다.

4.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막 1:15 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면,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 분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하늘 나라의 삶이 바로 다가 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 : 20-21)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려야 할 몫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5.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에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말은 희랍어 성경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말  
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현재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말( $\varphi\theta\acute{\alpha}\nu\omega$  : phthano = already attain) 과,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말( $\epsilon\gamma\gamma\acute{\iota}\zeta\omega$  : Engizō = come near ), 모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하실 때는 phthano=already attain 를  
사용하시고, ‘곧 맛보게 될 것이다’ 하실 때는 Engizō = come near 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릭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하신 경우는,  
( $\varphi\theta\acute{\alpha}\nu\omega$  : phthano = already attain)

누가복음 11 :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cast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is come upon you.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우는

( $\epsilon\gamma\gamma\acute{\iota}\zeta\omega$  : Engizō = come near)

마가복음 1 :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ye, and believe the gospel.**

Engizo 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임과 다르게 완전한 재림을 나타내는 말로서 살전 4:15 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 :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For this we say un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unto the coming of the Lord shall not prevent them which are asleep.**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the coming of the Lord ) 말은  $\pi \alpha \rho ο υ σ ί α$ : parousia 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왕이 행차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나팔 을 불며 왕의 도착을 알리고, 다음에 수발꾼등이 오며, 그 다음에 왕이 오고, 다음 수행원들이 따라 옵니다. 이런 광경을 묘사하는 말이 파루시아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 재림으로 성취될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둘 사이에 끼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 :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립보서 1 :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 :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서 1 :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께로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으나, 아직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위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마태복음 13 : 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태복음 13 :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7.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해 놓고, 정치 지도자답게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벌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 :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이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왕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영적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 영원한 나라의 왕, 왕중에 왕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III. 다음은 예수님 안에서 아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다릅니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 :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신인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셔 예수님을 완전히 통치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신성에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성에 인성이 완전히 굴복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 :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문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 :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완전한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실 때 우리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속죄제물만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애에 임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9 : 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And he said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re be some of them that stand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have seen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우리가 두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9.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우리를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로마서 7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 :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이 갈등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풍랑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외치면서, 율법과 죄와  
옛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성령과 새사람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 :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치할 때 육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갈등은 제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할 때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나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나의 인격은 첫째 아담의  
인격이 아니고 둘째 아담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지고,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 :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에 바울의 위대한 해방의 선언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되었다.

그래서 육을 따라 갈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로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청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요,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 :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